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해 온 사위를 살해한 장모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 지는 오래 되었다. 아내의 남편 살해, 자식의 아버지 살해사건도 벌어졌고, 그때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집안의 문제에 사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남성들의 손발을 묶는 악법'이라는 비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모의 사위 살해사건에서도 보듯이 남편의 아내 구타가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심각하였지만 남의 집안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살인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사회가 이 살인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연령이나 교육정도 생활수준과는 무관하다. 또한 대부분의 폭력이 습관적이어서 중독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 중에는 어른이 되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흔하고 딸들 중에 결혼하여 맞고 사는 것을 덜 끔찍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대물림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리는 남편이 중독성의 폭력증세라면 아내는 맞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매맞는 아내들은 어찌다 남편이 때리지 않거나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남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폭력을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말한다. 매맞는 것에 중독되어 일종의 자아정체성 상실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남편이고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주는 데 어떻게 때린다고 자녀들의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인식이 여성들을 매를 맞고도 계속하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이혼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여성들은 이혼후 생활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이혼의 결행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여성계의 요구는 단순히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매맞는 여성을 일정기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든 한편, 병적인 구타 습관을 가진 남편을 치료하고 교화하여 다시 가정을 복구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